

19. 노크하지 마시오 (Nicht anklopfen): 슬픈 Technology

- 인간과 사물 (인간이 하는 일) 사이: 인간은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일을 하면서 대상들과 만난다. 이 일들과 대상들과의 만남에는 언제나 <사이 (거리)>가 있다.
- 이 <사이>에서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 그것이 <사유와 경험>이다. 일들을 하고 사물을 다루면서 인간은 그 일들과 사물들의 관계들과 법칙들을 이해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들과의 교감이 일어나고 경험이 축적된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자연법칙을 배우지만 동시에 자연관계, 즉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자연적 운명도 배운다 (풀들을 자르면서 그 풀냄새가 가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 운명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도 성찰하게 된다.
- 그 결과가 Technologie를 개발시킨다.
- 기술 안에는 자연을 다루는 기술도 있지만 동시에 <...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동경도 들어 있다 (기술력 안의 욕망)
- 그러나 기술은 이 사이를 경제화 한다: 더 빠르게 (시간은 돈이다), 더 틀림없이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더 효율적으로 (
- 그러면서 '사이'의 사라짐, '거리'의 사라짐
- 이것이 <기능화>를, 기능화는 <자동화>를 만든다
- 기술은 이제 '경험'을 비경제적인 것, 쓸데없는 것으로 제거한다.
- '사이의 교감'이 없을 때 관계는 폭력적이 된다 (이기적인 목적 달성).
- 기술은 이제 기술적 대상들과 관계 맺기가 아니라 도구적 이용만을 위한 것으로 만든다: 내가 하는 일들은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며 (직업으로부터의 소외), 내가 다루는 대상

들은 모두가 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 이러한 기술력의 구조, 나와 사물과의 도구적 폭력적 관계는 나와 타자, 나아가 나와 나 사이의 관계 구조가 된다.

- 이 버튼 매커니즘 앞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건 무엇인가. 그건 '다가감'이다. 나와 대상 사이의 관계 맺음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다가감'. 이 다가감의 시공간에서 '관계'는 생겨난다.

- 타자에게 다가가기, 나에게 다가가기, 부드럽게 다가가기...

- 부드러움의 상실

- 버튼 메커니즘과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그렇다면 Technologie를 폐기할 것인가?

- 중요한 건 Technologie 앞에서의 절망 (기술에 대한 총체적비판, 자연주의자들)이 아니라 기술력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일이다.

- Umkehrung der Technologie: 만일 우리가 오늘의 미디어들을 인간적인 것들의 소통로로 바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혁명은 다름 아닌 오늘 날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일상의 다반사들이 기계화 되면서(기계처럼 행위가 정확해지면서/ 일반적인 행위가 오로지 그 주된 목적에만 겨누어지면서) 인간의 몸짓(Geste) 또한 어쩔 수 없이 빈틈이 없어지고 그래서 사나와진다. 몸짓이 사나와지고 거칠어지는 건 인간과 사물이 만날 때 신체가 어쩔 수 없이 수반해야만 하는 '망설임의 몸짓'(Zögern)이 기계를 따라야 하는 행동 때문에 쓸데없는 것으로 소멸 당하기 때문이다. 그와 더불어 인간과 사물 사이의 '경험'(Erfahrung)이 소멸된다. 이 경험은 '문지방 영역'(Schwelle)에의 경험이다. 이 영역은 목적주의적으로 보면 '쓸데없는 영역'(Überschuß)이지만 오직 이 영역 속에서만 신체의 자유와 사물자체의 고유성은 행위의 목적 그 자체만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채 보존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

은 본래 목적지향적이지만 행위의 목적성만으로 소모되지 않는 '(역사적이며 화해적인) 핵심적인 경험(Erfahrungskern)'을 또한 간직하고 있다. 이 자유와 소통의 영역이 도구적 이성과 그 구현인 일상사의 기계화에 의해 쓸데없는 것으로 폐기되면서 이성은 사물에 대한 폭력이 되고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변한다. 그 예가 약자에 대한 파시즘의 맹목적인 폭력의 본능이다.>

-파시즘은 아도르노에게 폭력 일반에 대한 보통명사다.

-Das Nichtidentische/ das Ausdruckslose는 동일화 하는 사유와 목적지향적인 행위에 자연적으로(역사철학적으로) 동반되는, 사유와 행위의 순간에는 미처 알 수 없게 일어나는, 그래서 후차적으로만 경험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부수현상이다. 이 현상은 행복의 경험과 유사하다. 행복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걸 미처 알지 알지 못한다. 행복이 지나갔을 때 우리는 '그때는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신체의 역사철학에 대한 고찰.

-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커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자판기를 발로 차면서 화를 낸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기찮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어쩐지 미소를 짓게 된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20. 더벅머리 페터(Struwwelpeter): 부드러움(das Zarte)

<옛 귀족들이 남겨놓은 정신의 유산 중에는 귀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약속해 주는 것도 있다. 그러나 소위 시민적 합리성은 귀족을 폐기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남겨놓은 정신의 유산들마저도 *모두 폐기 시켜 버렸다*. 그리고 남은 것이 생활에 유용하다는 이유와 목적으로 구축된 일상사의 실용적 규율들이다. 그러나 이 규율들은 '이익사회(Profitgesellschaft)'로 고착된 시민사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것(das Menschliche)'을 폐기 시켜버리게 된다. 인간적인 것은 언제나 '부드러운 것'인데 인간 사이의 이 부드러

움이 이익사회적 규율의 실용성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람들은 시간을 절약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러한 시간의 도덕 앞에는 '시간은 돈'이라는 경제주의가 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

<흠: "정확한 묘사는 아름다움을 낳으며 적확한 사유는 부드러운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부드러움이란 무목적적인 관계가 너와 나 사이에 가능하다는 의식의 다른 이름이다.>

<삶의 모든 것들이 제도화 되고 기능화 되었을 때 이 제도와 기능을 가장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들은 그 순응의 능력을 자신의 삶이 구가하는 자부심으로 착각하기에 이른다.>

<할로- 이 친숙하기 짝이 없는 서로간의 무관심과 냉담함>

<서로 간의 소외는 서로 간에 더는 (부드러움이 흐를 수 있는)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드러움은 어쩔 수 없이 타자로 실존하는 너와 나 사이를 밀접한 접촉관계로 만들어 주는 보이지 않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윤활유가 흐를 수 있는 거리는 사라져 버렸다. 그 대신 제도적이며 기능적인 일상의 규율들이 너와 나 사이를 용접시키면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 있다> - 이윤을 추구해야만 하기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는 아무 상관도 없는 관계이면서도 결코 헤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드러운) 거리의 소멸은 글쓰기에서도 나타난다. 용의 제자답게 하이어는 '즉각 테마로 직진하지 못하고 마치 나사처럼 조금씩 우회하면서 중심적 관건으로 나아가는 글쓰기의 습관 속에는 아직 문명화 되지 않은 태고적 대상 접근의 흔적이 남아 있다'라고 지적

했는데 이러한 글쓰기가 이제는 더 이상 용서 받지 못한다. 요즈음의 글들은 아무런 우회도 없이 직선적으로 테마를 향해 돌진한다. 그리하여 테마로 향하는 글쓰기의 몸짓 속에는 언어의 폭력성이 늘 내재하게 된다>

<(부드러움의 거리가 소멸되면서)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모든 것이 비즈니스일 때 일상은 비즈니스라는 말을 더 이상 언급될 필요가 없는 비즈니스 자체가 되어 버린다.>

<흉내뿐인 자유민주주의(pseudodemokratischer Abbau)는 (경제제일주의와 결탁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 존재했던 일체의 'das Undefinierte'(das Nutzlose/ das Zarte/ das Mimetische)를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로 폐기처분 시킨다. 아무런 의미도 담고 있지 않지만 인간다운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정한 형식의 인사들, 예의들, 나아가 농담짓거리들이 깨끗이 소독당하고 성찰도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는 직설적인 어휘와 어투와 행동만이 남는다.(*)(그 결과 자연의) 헐벗음(nackte Roheit)이 가장 근대화 된 의상을 입고 되돌아 온다. 근대화의 아 이러니가 스스로를 증명한다. 이데올로기를 폐기한다는 명분 아래 일방적으로 추앙되는 실용성(Sachlichkeit)이 인간을 Sache로 처리하는 이데올로기로 균림하게 되는 것이다> - Sachlichkeit가 '사적인 감정을 표백해 버린 엄정하고 객관적인 실재성 그것 자체'라면 그것은 한국인에게 낯설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인의 사유 속에는 '情'이라고 지칭되는 사적인 감성의 잉여물이 불가피하게 개재되기 때문이다. 정은 객관적으로 볼 때 주체가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 이미 선행적으로 발생하는 '교감'의 에너지다. 이 에너지는 민족정서의 샤마니즘적 기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체가 객체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지니는 친밀성과 애호성, 요컨대 친화력의 표현을 정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그 근원성에 의거하여 '순수애호감정'과 같이 호의적으로 정의 된다. 반면 불교에서는 정을 진리의 인식을

방해하는 '망념'으로 여긴다(여기서 종교는 모두가 샤머니즘적 원시적 이미지를 이지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탈신화화의 문명과정 속에 편입되는 문명화 현상임이 밝혀진다) 일상적으로 이해할 때 그러나 정은 순수감정과 타락한 감정이 착종된 일종의 감정적 콤플렉스다. 이 감정착종은 역사적인 해석의 대상이 된다)

* 개그가 무의미하다는 비판은 무의미하다. 개그는 오히려 무의미함을 의미화함으로써 상업화하는 대중문화이기 때문이다. 개그의 위험은 그것이 무의미를 유포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를 의미의 재생산 구조 속으로 편입시키는데 있다.

개그가 신체적 폭력의 도구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 필연적이다. 무의미를 의미로 강압하는 폭력은 언제나 신체를 통해서 그 얼굴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21. 교환은 안 됩니다 (Umtausch nicht gestattet): 슬픈 선물

선물주기는 교환법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교환법칙이 지켜질 때만 안심되는 사회 안에서 그 누군가가 이유 없이 선물을 주면, 교환법칙을 어기면, 당장 의심을 받는다. 아이들마저도 그냥 예뻐서 선물을 주면 혹시 뭘 팔려고 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로 선물 주는 사람을 바라본다.

<선물주기는 사라지고 대신 자선행위(사업)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자선은 '관리되는 선행'이다. 그것이 관리인 건 한 사회가 자선을 권장하는 건 그 자선을 통해서 '숨길 수 없도록 드러나 버린 그 사회의 상처를 봉합하려' 하기 때문이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선물주기와 달리 자선행위는 언제나 잘 조직 된 업무로서 행해진다. 누구에게 줄까, 얼마를 줄까, 어떤 식으로 줄까 등등... 그러한 자선의 업무는 받는 사람을 선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적절하게 나뉘어 배급되어야 하는 '객체'로 규정될 때에만 가능한 업무이다.

공적인 자선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적인 선물주기 역시 그러한 무의식적 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누군가에게 사적으로 선물을 주는 행위 또한 이제는 사회적인 기능 시스템으로 편입되어 버린 것이다. 어쩐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주머니 사정을 잘 따져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자꾸만 따져보면서, 되도록 선물 고르는 시간을 절약하면서...

<사적으로 선물주기는 사라지고 공적인 자선행위(사업)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자선은 '관리되는 선행'이다. 한 사회가 자선을 권장하는 건 그 자선을 통해서 '숨길 수 없도록 드러나 버린 그 사회의 상처를 봉합하려' 하기 때문이다.>

<선물주기의 행복은 선물을 받는 그 사람의 행복을 상상하는 행복이다. 선물을 준다는 건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지만 오늘날 선물을 주는 건 그렇게 선물을 줌으로써 되도록 빠르고 쉽게 그 사람을 잊으려는 행위가 되어 버렸다...>

-뭘 선물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은 이미 그가 그 사람에게 선물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폭로 시킨다. 그는 그 사람을 사실은 그렇게 진정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물주기는 뇌물주기의 행위 속에서만 그 잔재를 남기고 있을 뿐이다. 상사의 마음을 읽으려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바로 그 물건을 찾으려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아집을 일찍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품어본 적이 있었던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상실해버린 귀중한 능력이 있다면 그건 자신을(그 사람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상상력이다>

-발렌타인 데이 혹은 화이트 데이에 사람들은 빠짐없이 초코렛을 선물로 준다. 이 사실은 선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시장현상이다. 우선 '반드시 초코렛'이어야 한다는 선물의 규정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선물은 본래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서만 유효한 사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 사적인 것이 오늘날에는 공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이제 사람들은 공적인 것을 통해서만 사적인 것을 확인한다. 그래서 특정한 날 초코렛을 주지 않으면 사랑을 의심 받는다. 나아가 사랑이 없는 사이에도 초코렛은 오고가야 한다. 그것은 '강요'가 된다. 또한 초코렛은 선물 고르기의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 아무런 수고도 없이 우리는 선물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선택의 어려움을 통해서 확인되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 혹은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도태 된다.

선물은 본래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즉 결코 선물이 될 수 없는 그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하여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는 것이었다 ('아아, 나는 당신에게 선물조차 줄 수 없어요! 어쩌면 좋아요!')...

<살만한 사람들의 자선이 그 자선의 경제적 근거와 그로부터 작동하는 음험한 폭력을 슬그머니 도외시하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선택받은 그들만의 삶을 현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그렇게 유지되는 불평등한 삶의 구조 안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못 사는 이들도 겨우겨우 살아남게 만들려는 책략에 지나지 않는다

(Frei und einsam (scheinbar des absolutistischen Zwangs ledig ward,) steht es(das Individuum) für sich selber ein, während die vom Absolutismus entwickelten Formen hierarchischer Achtung und Rücksicht, ihres ökonomischen Grundes und ihrer bedrohlichen Gewalt entäußert, gerade noch gegenwärtig genug sind, um das Zusammenleben innerhalb bevorzugter Gruppen erträglich zu machen).>

['사랑의 리퀘스트'에 대하여]

22. 목욕물을 버린다고 아이마저 함께 버리는 (Kind mit den Bade)

모든 것들을 발생론적으로 결정하는 것, 즉 근원이 이랬다면 그 결과 (Sinn)도 또한 그럴 수 밖에 없으리라는 결정론은 기원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Impulse/Regung/ das Mimetische) 무의지적 상상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또 하나의 야만일 뿐이다.

유토피아(꿈)를 잃어버린 뒤에 사람들은 지나치게 실천적이 되어 버렸다. 이론 혼자서는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은 너무 커져서 결국 사람들은 세상을 그 뿌리까지 탐구하는 일을 그만두고 세상 속으로 투항해 버린다.

장사꾼의 정신과 냉철하게 판단을 내리는 비판정신은 점점 더 비슷해져서 나중에는 무엇이 비판의 객체이고 누가 비판의 주체인지가 불분명해진다.

밥이 너무 질다고 그 위에 생쌀을 붓거나 밥이 너무 설었다고 그 위에 물을 붓는 건 이미 지어진 밥을 아예 먹지 못할 밥으로 만들 뿐이다. 정치이든 문화이든, 어떤 것이 실패했다고 그 위에 새로운 유토피아의 옷을 입히는 건 문화 자체를 새로움이라는 야만성으로 폐기시킬 뿐이다. 야만은 꿈이 폐기 당한 상태에 대한 이름이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건 지나친 실용주의에의 맹목적 믿음 뿐이다. 잃어버린 십년이라는 주장 또한 마찬가지다. 이미 걸어온 길을 갈아엎어 땅 속으로 묻어버리고 그 위에 완전히 새 길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그들이 얼마나 공적인 것, 역사적인 것을 사유물로 전취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일일 뿐이다.

23. 복수형만 있는 명사 (Plurale tantum): 슬픈 조폭

<세상의 부당함에 대해서 무섭게 분노를 터뜨리며 자신의 정당함을 격렬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그는 마치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공격 명령을 내리는 갱단의 두목처럼 보인다 (세상에 대해서 격렬하게 화를 내는 사람은 마치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공격 명령을 내리는 갱단의 두목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조폭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영화, 드라마, 일상생활 안에서까지 조폭은 아주 친숙한 단어 혹은 현상이 되었다. 그건 조폭이 의리를 앞세우고 나름대로 인간관계를 지니는 멋진 면이 있다는 풍문 때문이기도 하고 단순히 미디어들이 그들의 시장성을 통해서 (액션, 서스펜스, 강한 이미지 등등의 시장성은 조폭에 어울린다) 있지도 않은 조폭의 영웅성을 조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문화 비평가들은 말한다. 그러나 혹시 조폭의 호경기는 우리들 자신이 조폭으로부터 위안을 받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는 조폭이 그렇듯 우리들 자신을 때리고 화내고 감금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조폭이 된다. 그러한 자신의 조폭성을 영화와 드라마의 조폭은 숨기지 않고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은밀한 조폭성을 보편적인 조폭성으로 받아 들이면서 위안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화를 내고 명령을 내리는 건 우리들 자신이 우리들 자신만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버린 강압 구조 때문이다.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 조폭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자신을 둘로 분리한다. 하나는 주인으로서의 나, 하나는 하인으로서의 나. 하인-나가 주인-나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그는 하인-나에게 화를 내고 욕박지른다. 그렇게 나는 자신의 의리있는 동료 대신 감옥에 보내는 조폭을 닮는다.

어딜 가나 분노의 외침을 들을 수 있다. 찻집에서, 사무실에서, 택시 안에서, 물론 술자리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세상에 분노하는 건 내가 그 세상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다.

우씨는 잠깐 서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 여자의 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 여자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그건 결국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여자를 포기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우씨는 액정 화면 위에서 그 여자의 눈처럼 까맣게 빛나는 번호들을 오래 쳐다 보았다.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우씨는 결국 휴대폰을 달아 버렸다. 부끄러움이 온 몸 안에 가득 찼다. 그 부끄러움은 그 여자를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조금 슬자리와 더불어 떠오르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것이기도 했다...

슬자리에서 정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분노는 무섭다. 그 분노는 공격하려는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에게로 향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슬잔을 내던지는 건 그 자신을 산산조각 내려는 절망 때문이다. 때때로 자기 자신이 가엾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때를 누구나 안다. 그러나 그 가엾음은 그의 적들과 그가 똑같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의 분노 역시 그가 공격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욕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공격하는 일은 너무나 정당하다. 이제 적들이 밖에만 있는 행복한 이분법의 시대는 지나버린 것이다. 모두가 '현실에 꼭 들어맞는 자아'일 뿐이다. 우리 안에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또 하나의 자아가 있다. 현실에 꼭 들어맞지 않으면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으며 결국에는 비참한 삶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아의 본 얼굴이기 때문이다. 현실에 꼭 들어맞을수록 그 사람은 두려움으로 포만한 사람인지 모른다.

24. 티프 베이비 (Tough Baby): 슬픈 장동건

<...als Luegner erst werden sie (Maenner) wahrhaft zu Sadisten, Agenten der Repression. Jene Luege ist aber keine andere, als dass verdraengte Homosexualitaet als einzig approbierte

Heterosexuellen auftritt (터프 가이드들이 (사회적) 억압의 대리인, 즉 사디스트들이 되는 건 그들이 철저하게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을 때이다. 터프 가이드들의 거짓말은 또 하나의 거짓말, 즉 이성간 섹스가 단 하나 정당한 성적 관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억압해 버린 동성애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걸 은폐하는 거짓말과 다르지 않다)>

-억압된 것은 되돌아온다. 그러나 영 다른 얼굴을 하고. 카프카가 말하듯 성은 본래 혼음적이었다. 즉 그 안에는 성적 구분이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동성애적이었던 성의 자연 상태는 문명화 과정과 더불어 인간의 영역으로부터 금지되었다. 혼음은 이성애 혹은 결혼이라는 합리적 성애관계로 고착 되었다. 하지만 화해 없는 억압과 금지는 억압되고 금지된 것들을 다시 불러들인다.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을 가운데 두고 맺어진 성적관계, 다시말해서 본래 구분이 없었던 통합적 성을 탈통합화해서 다시 통합시킨 문명화-합리화 된 남녀관계는, 억압된 것의 회귀 법칙에 의해서, 잘 통합된 것 같지만 사실은 내적으로 탈통합화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야, 일심동체야, 사랑하는 이들은 말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통합적인 것을 이분화해서 재통합화 시킨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그 재통합화 속에는 다시 본래의 통합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탈통합화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을 수 밖에 없다). 통합적인 것을 억압해서 재통합화 시키는 그러한 합리화 원칙은 총체적 원칙이다. 이 총체적 원칙은 자연상태의 성적 원칙, 즉 동성애적 혼음성 원칙과 그 총체성에서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Totalitaet und Homosexualitaet gehoeren Zusammen (총체성과 동성애는 결국 한 통속이다)>*.

-모든 지배는 이분화 될 수 없는 것을 이분법화 함으로써, 그 이분법을 원칙으로 삼음으로써만 가능해진다. 남성적 타입과 여성적 타입이라는 남성성의 구분은 거짓 구분이다. 그것은 본래 남성적/ 여성적이 존재할 수 없었던 자연 상태를 이분화 함으로써 타자성이 되어 버린 어떤 부분을 억압하기 위한, 혹은 그 부분에 대한 공포를 은폐하기 위한 무력한 합리성의 자기방어술일 뿐이다. 때문에 강한 남자, 터프 가이, 명령을 내리는 사디스트는 사실상

아도르노 - 『미니마 모랄리아』 혹은 상처로 숨쉬는 법 7강 강의 자료

여성적 남자, 끝없이 자기폭력과 자해에 시달리고 억눌리는, 그럼으로서만 비로소 쾌락을 느끼는 매조키스트일 뿐이다...